

『鄉藥集成方』 引用書인 『集成』에 관한 考察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¹ · 한국전통의학연구소²

송지청¹ · 금경수^{1,2} · 엄동명^{1,2*}

A Study on 『Jipseong』 quoted in 『Hyangyakjipseongbang』 - Based on the traditional medical classic -

¹Dept. of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²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Song Jichung¹ · Keum Kyungsoo^{1,2} · Eom Dongmyung^{1,2*}

Objective : In 『Hyangyakjipseongbang』 there are quotation remark as 『Jipseong』, that means 『Hyangyakjipseongbang』 because this is self-quotation. The contents of 『Jipseong』 that 『Hyangyakjipseongbang』 mentioned are in 『Yifangjicheng』. So 『Jipseong』 means abbreviation of 『Yifangjicheng』 and 『Jipseong』 should be 『Jicheng』.

Method : We will try to do bibliographical methods on 『Jicheng』 and the books related to 『Jicheng』 through 『Isekigo』, 『Zhongyiyijidacidian』 and 『Zhongguoyijitongkao』.

Result : 『Yifangjicheng』 is not handed down but the contents of that are in 『Yifangdacheng』. There are three differnt types(authors) of 『Yifangdacheng』. One of 『Yifangdacheng』 was enlarged to 『Yifangdacheng』. In 『Euibangyoochui』 there are several quotations such as 『Yifangdacheng』, 『Yishudadian』, 『Nanbeijingxianfang』, 『Yongleilingfang』 related to 『Yifangjicheng』.

Conclusion : 『Jipseong』 mean 『Yifangjicheng』 instead of 『Hyangyakjipseongbang』 and there are some kinds of books related to the similar contents of 『Jicheng』.

Key Words : 『Hyangyakjipseongbang』, Jipseong, Jicheng 『Yifangjicheng』, 『Yifangdacheng』, 『Yishudadian』, 『Euibangyoochui』

I. 序 論

朝鮮初期 韓國醫書인 『鄉藥集成方』은 編制上 韓國

및 中國 醫方書를 다수 言及하고 있다. 『鄉藥集成方』은 略稱 『鄉集』 또는 『集成』, 『集成方』이라 하는데, 『鄉藥集成方』에 言及된 書籍 中에 『集成』이 있어 疑問點이 있었다. 研究를 하던 中에 『鄉藥集成方』의 『集成』이 中國醫書의 略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集成』과 관련된 書籍의 書誌事項을 살펴보았다.

관련 연구로 金南일의 『鄉藥集成方』의 인용문헌에 대한 연구¹⁾가 있는데 著者는 『醫方大成』과 『醫方

* 교신저자 : 엄동명.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E-mail : haksan@wku.ac.kr
Tel : 063-850-6941, Fax : 063-851-6941
접수일(2011년 9월 5일), 수정일(2011년 10월 26일),
게재확정일(2011년 11월 22일)

『集成』을 동일서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鄉藥集成方』 인용서적 가운데 ‘集成’ 또는 ‘集成方’이라 표기한 서적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 미비한 점이 있다.

II. 本 論

1. 『鄉藥集成方』에 언급된 『集成』

『鄉藥集成方』에는 『集成』, 『集成方』, 『醫方集成』 등 인용표기인 ‘集成’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 『鄉藥集成方』에 『集成』이言及된 부분을 그림과 함께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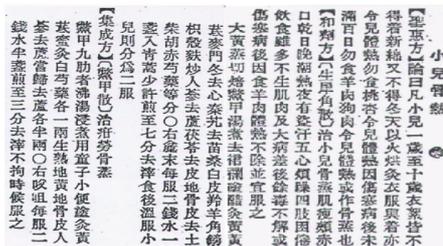


그림 1. 『鄉藥集成方』 중 『集成』을 인용한 부분



그림 2. 『鄉藥集成方』 중 『醫方集成』을 인용한 부분

小兒骨熱

集成方[鼈甲散]治疳勞骨蒸

鼈甲九肋者 沸湯浸煮 用童子小便 塗炙 黃耆蜜炙 白芍藥各一兩 生熟地黃 地骨皮 人參去蘆 當歸去蘆各半兩 ○ 右咬咀 每服二錢水半盞 煎至三分去滓 不拘時候 服之²⁾

위의 ‘集成方’은 『集成』에 수록된 處方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集成』은 물론 『鄉藥集成方』을 의미하지 않는다. 『鄉藥集成方』에 醫論을 밝히면서 언급한 書籍

- 1) 김남일. 『鄉藥集成方』의 인용문헌에 대한 연구. 진단학회. 진단학보. 87권 1999.
- 2) 鄉藥集成方. 서울. 행림서원. 1977. p.539.

中에서 『集成』과 관련된 것이 있는데, 바로 『醫方集成』이다. 예를 들어 『鄉藥集成方』에,

脾胃

【醫方集成】論曰 人身之脾胃 專藉之以容納五穀而剋化之脾屬土而居五藏之中 寄旺於四時之內 以土能容載萬物故好靜 其脈常喜沈細而緩 帶浮緊浮數者 卽有病之脈也 尋常理脾胃之道 當用以平和之藥 又須時其飢飽 不以生冷之物傷之 不爲寒暑所侵 不爲七情所傷 如是則氣體自然充實 百病不生 將理失宜 或爲六淫七情相干 爲嘔爲泄爲喘爲滿 變生諸證 又當於各類求之 略述此 以爲養生者之助³⁾

라 한 것이다.

이에 『醫方集成』이 어떠한 서적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書誌事項을 조사한 결과, 『醫方集成』은 현재 失傳되었지만 『鄉藥集成方』에서 引用하고 있는 위 내용이 現存하는 『醫方大成』(그림 3)에 그림 4, 5와 같이 동일하게 나와 『醫方集成』과 『醫方大成』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書籍임을 알게 되었다.



그림 3. 『醫方大成』 표지



그림 4. 『醫方大成』中脾胃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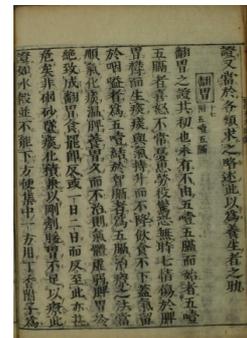


그림 5. 『醫方大成』中脾胃門 내용²⁾

- 3) 鄉藥集成方. 서울. 행림서원. 1977. p.203.

이 외에도 『鄉藥集成方』에 『醫方集成』을言及하면 밝힌 醫論이 『醫方大成』에 수록되어 있다.

이로써 보면 『鄉藥集成方』에 언급된 『醫方集成』은 現存 『醫方大成』이다. 이에 『醫方集成』과 『醫方大成』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醫方集成』과 『醫方大成』을 언급하고 있는 의적사전을 통해 두 서적의 書誌事項을 살펴보았다.

2. 『醫方集成』

1) 『醫籍考』

『孫氏允賢醫方集成』: 佚失된 書籍으로 元初에 孫允賢이 여러 方書를 모아 『大成』이라고 하였다. 『三因方』과 嚴用和의 說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⁴⁾.

2) 『中醫醫籍大辭典』上

『中醫醫籍大辭典』에는 『醫方集成』을 찾아보면 『醫方大成』을 說明하는 가운데 언급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醫方大成論』: 不分卷. 元·孫允賢原撰, 熊彥明增補. 1321년에 成書, 1343년에 增補. 『三因方』과 嚴用和의 說을 바탕으로 元初에 孫允賢이 『醫方集成』을 編纂하고 후에 熊彥明이 『宣明論方』, 『濟生拔粹』 등의 내용을 添加하여 『醫方集成』을 增補하고 『醫方大成』이라 하였다⁵⁾.

위 두 내용을 보더라도 『醫方集成』과 『醫方大成』의 관계가 매우 밀접함을 알 수 있다. 『醫籍考』에서는 孫允賢의 『醫方集成』을 설명하면서 『大成』이라 하였으며, 『中醫醫籍大辭典』에서는 『醫方集成』을 增補하여 『醫方大成』이라 하였다.

『醫方集成』은 現存하지 않으나 『醫方大成』을 통해 그 내용이 전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醫方大成』에 대해서 더 살펴보았다.

3. 『醫方大成』

1) 『中醫醫籍大辭典』上

『醫方大成論』: 不分卷. 元代 孫允賢이 1321년에 撰하였고, 熊彥明이 1343년에 增補하였다⁶⁾.

2) 『中醫醫籍大辭典』下

『醫方大成』: 8卷. 清代 張修業(字舜卿)이 撰하였다. 錢謙益의 說에 未詳이며, 清道光二十一年 『武城縣志續編』에 보인다⁷⁾.

『醫方大成』: 明代 陳子靖이 撰한 것으로 成書연대 및 내용 未詳이다⁸⁾.

3) 『中國醫籍通考』

『醫方大成』: 陳子靖의 著書로 佚失되었다. 吳澄의 序에 그 내용이 있다⁹⁾.

4) 『醫籍考』

『熊氏彥明類編南北經驗醫方大成』: 10卷. 題詞에 孫允賢의 『醫方集成』에 『濟生拔粹』, 『宣明論方』 등의 내용을 더하여 增補하고 이름을 『醫方大成』이라 한다고 하였다¹⁰⁾.

『陳氏子靖醫方大成』: 佚失. 明代 陳子靖이 撰한 것으로 成書연대 및 내용 未詳이다¹¹⁾.

5) 『中醫醫籍大辭典』上

『醫方大成論和語鈔』: 八卷. 熊彥明의 『醫方大成』을 日本人 岡本一抱가 1702년에 注한 것이다¹²⁾.

『(南北經驗)醫方大成鈔』: 十卷. 熊彥明의 『醫方大成』을 日本人 桒釋玄幽가 校正한 것이다¹³⁾.

4) 丹波元胤. 醫籍考.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399.

5) 中國醫籍大辭典編纂委員會. 中國醫籍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2. pp.394~395.

6) 中國醫籍大辭典編纂委員會. 中國醫籍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2. pp.394~395.

7) 中國醫籍大辭典編纂委員會. 中國醫籍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2. p.1670.

8) 中國醫籍大辭典編纂委員會. 中國醫籍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2. p.1670.

9) 中國醫籍通考.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1. p.2329.

10) 丹波元胤. 醫籍考.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399.

11) 丹波元胤. 醫籍考.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400.

12) 中國醫籍大辭典編纂委員會. 中國醫籍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2. p.395.

13) 中國醫籍大辭典編纂委員會. 中國醫籍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2. p.395.

위 내용으로 보면 『醫方大成』은 모두 3種이 있다. 熊彦明의 『醫方大成』만 現存하며, 孫允賢의 『醫方集成』을 增補하여 편찬한 것이다. 熊彦明의 『醫方大成』은 日本에도 전해졌다.

熊彦明의 『醫方大成論』과 관련하여 熊宗立의 『醫書大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熊宗立은 熊彦明의 孫子로 熊彦明의 『醫方大成論』을 다시 增補하여 『醫書大全』을 지었기 때문이다.

4. 『醫書大全』

1) 『中國醫籍通考』

『名方類證醫書大全』: 二十四卷. 熊宗立이 撰하였다. 一名 『醫書大全』이다. 自序가 있으며 선조인 熊彦明의 『醫方大成』을 增補하여 24卷의 『醫書大全』을 편찬하였다¹⁴⁾.

2) 『中醫醫籍大辭典』上

『名方類證醫書大全』: 二十四卷. 明·熊均(字宗立, 道軒, 號勿應子)이 1446년에 編纂하였다. 『醫書大全』, 『醫方大成』이라고도 한다¹⁵⁾.

결과적으로 孫允賢의 『醫方集成』은 熊彦明의 『醫方大成』을 거쳐 熊宗立의 『醫書大全』을 통해 전해져 내려왔다.

III. 考 察

1. 『鄉藥集成方』내의 『醫方集成』, 『集成方』, 『醫方大成』 引用

『鄉藥集成方』에서 『醫方集成』, 『集成方』, 『醫方大成』등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검색해 보면 『醫方集成』은 모두 19곳, 『集成方』은 모두 21곳, 『醫方大成』은 모두 4곳에서 인용하고 있다.

『醫方集成』을 인용하고 있는 19곳 가운데 脚氣門, 諸虛門, 赤白濁, 自汗, 癩冷, 勞瘵門, 脹滿, 欬逆, 脾胃門 등 모두 9곳은 醫論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10곳은 모두 처방을 인용하는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다.

『集成方』을 인용하고 있는 21곳 가운데 諸痢門, 痔漏門 등 2곳에서는 醫論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19곳에서는 모두 처방을 인용하는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다.

『醫方大成』을 인용하고 있는 4곳은 暑門 濕門 積熱門 眩暈門 등인데 이 4곳은 모두 醫論을 언급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해당하는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諸痢門

【集成方】論曰 今之患病者 古方謂之滯下是也 得病之由 多因脾胃不和 飲食過度 停積于腸胃之間 不得剋化 而又爲風寒暑濕之氣干之 故爲此疾 傷熱下痢則赤 傷冷則白 傷風則純下清血 傷濕則下如豆羹汁 冷熱交併 則赤白兼下 又有如魚腦髓者 治法當先用通利之藥 疎滌臟腑積滯 然後辨以冷熱風濕之證 用藥調治 熱赤者清之 冷白者溫之 風濕者分利之 冷熱相兼者 溫涼以調之 仍須先調助胃氣 切不可驟用罌粟殼 阿子之藥止澁之 使停滯不能疎泄 未有不致危者 凡下痢之脉 宜微小 不宜浮洪 宜滑大 不宜弦急 身寒則生 身熱則死 間有瘡痢兼作者 惟當分利陰陽 理脾助胃 因毒物致病者 宜解之 不可一概而論¹⁶⁾

肺癰

【集成方】【棗膏丸】治肺積在右脇下 大如盃 發爲癰疽 陳皮 桔便 葶藶別研 各等分 ○右二味爲末 入葶藶研均 煮棗肉和丸 如桐子大 每服五七丸 米飲送下¹⁷⁾

積熱門

【醫方大成】論曰 積熱者 熱毒蘊積於其內也 夫人固有體氣素實 一時感觸熱毒之氣 或鬱積臟腑之間 或在心肺之內 令人口苦咽乾 涎唾稠粘 眼澁多淚 口舌生瘡 大小便秘結 又有陰盛血衰 三焦已躁 服餌酒灸之物 并丹石之藥 愈助其熱 結滯於內 亦能令人變生諸證 治之須詳其脈證 若在心膈者清之 結于臟腑者蕩滌之 更量人氣體虛實輕重用藥¹⁸⁾

14) 中國醫籍通考.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1. p.2402.

15) 中國醫籍大辭典編纂委員會. 中國醫籍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2. p.398.

16) 鄉藥集成方. 서울. 행림서원. 1977. p.272.

17) 鄉藥集成方. 서울. 행림서원. 1977. p.302.

2. 『醫方類聚』내의 『醫方集成』, 『醫方大成』 인용

『醫方類聚』에도 『醫方集成』과 『醫方大成』에 대한 내용이 여러 군데 언급되어 있다.

醫方大成

水腫

和劑方五苓散方 見本書卷二十五 諸暑門 一引三因方
治水腫 小便不通者 加木通 茵陳 醫方集成 南北經驗方 袖珍方 永類

針方同 方見諸暑門

和劑方五皮散 治風濕客於脾經 氣血凝滯 以致面目虛浮
四肢腫滿 心腹膨脹 上氣促急 永類針方此下云 兼治皮水 妊娠胎水

五加皮 地骨皮 生姜皮 大腹皮 茯苓皮 各等分 針方云 一方加

白朮 磨沈木香入

右咬咀 每服三錢 水一盞 煎至八分 熱服 不拘時 切忌
生冷 油膩堅硬等物 澹寮去 五加皮 地骨皮 用陳皮 桑白皮

醫方集成 南北經驗方 袖珍方同¹⁸⁾

醫方大成

三因方大調經散 治榮衛不調 陰陽相乘 憎寒發熱 自汗
腫滿

大豆炒 去皮 一兩半 茯苓一兩 真琥珀一錢

右爲末 每用一錢 濃煎烏豆 紫蘇湯調下 醫方集成 南北經驗方

袖珍方同²⁰⁾

醫方大成

湯氏方治盤腸氣痛 用沒藥 乳香各少許 研細 用木香壺
塊 於乳鉢內磨水半盞 調乳香沒藥末 煎數沸服之 立效

醫方集成 南北經驗方 袖珍方 衛生易簡方同

幼幼方茴香散 治小兒盤腸氣痛

茴香炒 木香 黑附子炮 金鈴子去核 用皮 蘿蔔子炒 檳榔 破故
紙炒 白豆蔻煨 各等分

右咬咀 每服二錢 水半盞 入鹽煎服 醫方集成 南北經驗方 袖珍方同

經濟方木香散 治小兒盤腸氣痛不已 面青手冷 日夜啼叫
尿如米泔

川煉子七介 去皮核 用巴豆三拾五粒 去皮同炒 令巴豆黃 去巴不用 木香
黃使君子肉 延胡索 茴香 各一分

18) 鄉藥集成方. 서울. 행림서원. 1977. p.71.

19) 醫方類聚(交點本 6分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9. p.459.

20) 醫方類聚(交點本 10分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9. p.142.

右同爲末 清米飲空心調下 量兒大小服之 醫方集成 南北經驗方
袖珍方同²¹⁾

라는 내용이 나온다. 주목할 부분은 『醫方類聚』는 동일한 내용이 『醫方大成』, 『醫方集成』, 『南北經驗方』, 『永類鈴方』에도 나온다고 밝혀 『醫方類聚』를 편찬할 때 『醫書大全』을 포함한 위書籍들이 서로 相關性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3. 『醫方集成』과 『醫方大成』의 關係

『醫方集成』과 『醫方大成』에 대한 언급을 정리해 보면 『醫方集成』은 1종이지만 『醫方大成』은 서로 다른 3종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醫方集成』과 『醫方大成』과 관련된 『醫書大全』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1) 孫允賢의 『醫方集成』

元代 孫允賢이 1321년에 撰한 書籍이다. 王元福의 序文에 의하면 孫允賢이 『三因方』과 嚴用和의 글을 참조하여 本書를 撰하였다라고 한다.

3-2) 熊彥明의 『醫方大成』

① 熊彥明의 『醫方大成』은 孫允賢의 『醫方集成』을 根源으로 하고 있다. 熊彥明이 『宣明方論』과 『濟生拔粹』를 바탕으로 하여 『醫方集成』을 增補하면서 『醫方大成』(1343년)이라 하였다. 『醫方大成』은 또한 『類編南北經驗醫方大成』, 『南北經驗醫方大成』, 『南北經驗大成』이란 異名을 가지고 있다. 『醫方集成』은 現存하지 않으며, 『醫方大成論』은 現存한다.

② 『醫方大成』은 日本에서 재출간 되었다. 日本人 埜釋玄幽가 17세기에 『醫方大成』을 校正하여 『醫方大成鈔』를 刊行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1702년에 日本仁 岡本一抱가 『醫方大成』을 注하여 『醫方大成論和語鈔』를 刊行하였다. 모두 現存한다.

21) 醫方類聚(交點本 11分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9. p.442.

3-3) 陳子靖의 『醫方大成』

吳澄의 序文에 의하면 陳子靖이 撰한 書籍으로 언급되어 있다. 佚失된 書籍이다.

3-4) 熊宗立의 『醫書大全』

1446년 熊宗立이 撰한 書籍이며, 『醫方大全』 또는 『名方類證醫書大全』이라고도 한다. 本書는 熊彦明이 撰한 『醫方大成』의 기초아래 增補한 것이다. 現存한다.

3-5) 張修業의 『醫方大成』

清代 張修業이 撰한 書籍으로 성서연대 및 내용은 未詳이다. 清道光二十一年 『武城縣志續編』에 書籍이 言及되어 있다.

김남일은 『醫方集成』과 『醫方大成』을 동일 서적으로 간주하고, 『醫方大成』은 『新編醫方大成』, 『類編經驗醫方大成』이라고도 하는데 10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72門으로 200여 처방이 수록되어 있다고 하였다.²²⁾ 그러나 『醫方集成』과 관계있는 『醫方大成』은 熊彦明의 『醫方大成』 뿐이고 陳子靖의 『醫方大成』이나 張修業의 『醫方大成』은 『醫方集成』과 무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熊彦明의 『醫方大成』은 熊宗立의 『醫書大全』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IV. 結 論

韓國醫書인 『鄉藥集成方』에 언급된 『集成』은 自己 引用이 아니라 『醫方集成』을 意味한다. 『醫方集成』은 失傳되었으나 現存하는 『醫方大成』의 내용과 일치하여 두 書籍인 밀접한 관계가 있는 書籍임을 알 수 있다.

『醫籍考』, 『中醫醫籍大辭典』, 『中國醫籍通考』를 통해 살펴본 『醫方集成』과 『醫方大成』의 關係는 다음과 같다.

『醫方大成』은 3種이 있다. 하나는 熊彦明의 『醫方大成』이며, 다른 하나는 陳子靖의 『醫方大成』이고, 또 다른 하나는 張修業의 『醫方大成』이다. 그 중

22) 김남일. 『鄉藥集成方』의 인용문헌에 대한 연구. 진단학회. 진단학보. 87권 1999. p.71.

熊彦明의 『醫方大成』은 孫允賢의 『醫方集成』을 增補하여 편찬한 것으로 『類編南北經驗醫方大成』, 『南北經驗醫方大成』, 『南北經驗大成』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日本에서는 이 책과 관련하여 『醫方大成鈔』, 『醫方大成論和語鈔』를 刊行하였다. 아울러 熊彦明의 孫子인 熊宗立은 熊彦明의 『醫方大成』을 바탕으로 增補하여 다시 『醫書大全』을 刊行하였다. 陳子靖의 『醫方大成』은 現存하지는 않으나 熊彦明의 『醫方大成』과는 別個의 書籍이며, 마찬가지로 張修業의 『醫方大成』도 別個의 書籍이다.

『醫方類聚』에도 『醫方集成』과 『醫方大成』을 引用書로 밝히고 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이 『南北經驗方』, 『永類鈴方』, 『袖珍方』에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醫方集成』은 失傳되었으나 『醫方大成』과 『醫書大全』의 成書과정에서 보듯이 그 내용이 『醫方大成』과 『醫書大全』에 收錄되었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醫方類聚』의 引用書籍을 바탕으로 『南北經驗方』, 『永類鈴方』, 『袖珍方』 등의 書籍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研究者들은 세 書籍에 대해 區別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醫方大成』은 著者が 다른 同名의 書籍도 존재하며, 동일한 내용의 『南北經驗方』, 『永類鈴方』, 『袖珍方』도 존재하므로 研究를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이다.

V. 感謝의 글

이 논문은 圓光大學校 2011년 校內研究費로 작성되었습니다.

VI. 參考文獻

1. 鄉藥集成方. 서울. 행림서원. 1977. p.71, 203, 272, 302, 539.
2. 丹波元胤. 醫籍考.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399, 400.
3. 中國醫籍大辭典編纂委員會. 中國醫籍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2. p.395, 398, 1670. pp.394~395.

4. 中國醫籍通考.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1.
p.2329, 2402.
5. 醫方類聚(交點本 6分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9. p.459.
6. 醫方類聚(交點本 10分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9. p.142.
7. 醫方類聚(交點本 11分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9. p.442.
8. 김남일. 『鄉藥集成方』의 인용문헌에 대한 연구.
진단학회. 진단학보. 87권 1999.